

“소외된 수공예 작가 다양한 지원 이뤄져야”

▶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 활성화 간담회

‘수공예종합지원센터 설립’ 제기 “공예품전시관 판매 수익증대 홍보 마케팅 계획 필요”도 주장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 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외된 수공예 작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는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 조성을 위해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오태수)이 전주지역 수공예 분야 10개 단체 리더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거론됐다.

이날 간담회는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활용과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역 수공예 단체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북공예협동조합 진정욱 이사장은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운영과 관련해 “공예품전시관 운영의 판매 수익 증대에 대한 다각도의 홍보 마케팅 계획이 필요하다”며 “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판로개척과 운영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년전주한지포럼 김경기 대표는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시설 부분에 대해 “지역의 우수한 수공예 인프라인 무형문화재를 활용해 전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 한국을 대표하는 수공예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오태수)이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 조성을 위해 전주지역 수공예 분야 10개 단체 리더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간담회를 열었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홍준 전북전통공예인협회 회장은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 조성사업 관련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아 수공예인의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기대감이 참 높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운영에 있어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타 지역 전문가의 지휘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많다.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또한 호남음지공예협동조합 이영기 의장은 “지역의 소외된 수공예인들의 판로개척과 애로사항 등 청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수공예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며 이의 설립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전북전통공예인협회 김홍준 회장, 전북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고수환 이사장, 전승공예연구회 김선자 회장, 전북무형문화재보존협회 김선에 이사, 전북공예협동조합 진정욱 이사장, 천년전주한지포럼 김경기 대표, 한지문화진흥원 백철희 이사, 호남음지공예협동조합 이영기 의장,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박명영 미술집장, 파피루스 신재승 부회장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사업운영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A등급’ 받아

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7년도 새일센터 사업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사업운영 평가는 전국 여성새일센터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사업결과를 사업수행역량, 상담서비스, 직업훈련 및 인턴운영, 취업성과,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6개 부분으로 나눠 A~E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는 전국 154개 새일센터 중 120곳을 평가하여 상위 10% 센터를 A등급으로 선정하고 있다.

전북새일센터는 2016년도에 도내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희망 여성 1,870명에게 취업의 꿈을 실현하도록 해주었다. 새일여성인턴 72명(결혼이민여성 12명 포함)과 5개 기업에 기업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했으며, 71개 여성친화일촌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8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60명이 수료했으며, 취업률 92%를 달성하는 등 여성들의 취업 욕구를 유발하고 취업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신수미 센터장은 “기존 재직여성 고용유지율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특강, 취업자간담회, 기업인사담당자 교류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전북새일센터에 문의하면 맞춤형 직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인턴연계 등 취업연계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문화누리카드 연말까지 미사용시 잔액 소멸

전북문화관광재단 ‘카드 사용 서둘러야’ 이달에도 ‘문화장터 이벤트’ 실시키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자에게 카드 사용을 서둘러 것을 독려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올 연말까지 카드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격차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연간 6만원어치의 카드다. 카드 사용처는 여행사, 영화관, 서점, 숙박업소, 체육시설 등

이다. 내년에는 1만원이 인상돼 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 확인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또는 문화누리콜센터(1544-3412), 농협카드 콜센터(1644-4000)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재단은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모르거나 활동이 제약되어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기 힘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문화장터’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달에 이어 12월에도 도내 각 시·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일제강점기 작가 김사량 그의 이상은 ‘새로운 민주주의’

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노자 교수, 전주대서 초청 강연 “진보적 지식인은 이상적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해”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일본 원아시아재단(이사장 사토 요지)과 함께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II)’ 시리즈 강연을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의 박노자(Vladimir Tikhonov) 교수가 강단에 섰다. 그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하는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저서와 각종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과 날카로운 논리로 한국사회를 비판하고, 세계사적 시각에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박노자 교수는 일제강점기 작가 김사량(1914~50)과 그가 남긴 일기를 소개했다. 김사량의 일기는 조선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와 중국 공산당의 국

제적 활동무대였던 중국에서의 체험담이다.

1940년 조선 청년의 비애를 그린 작품 ‘빛 속으로’가 이쿠타가와상 후보작에 오르며 유명 작가가 된 김사량. 그는 1943년 조선으로 귀국한 뒤 일본의 군사 선전업무를 맡아 중국에 갔다가 탈출을 감행, 조선의용군 기지로 종군하다 해방이후에는 북한에서 활동했다.

박 교수는 강의 말미에 “김사량은 해방된 중국 지역을 목격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다소 이상화된 그림을 꿈꾸고 있으나, 진보적 지식인은 이와 같은 이상적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이상적인 꿈을 꾸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갈 것”을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